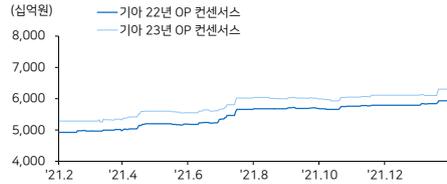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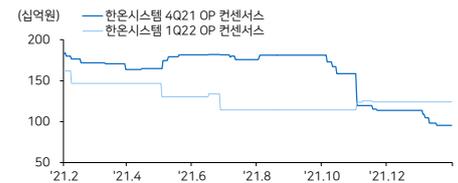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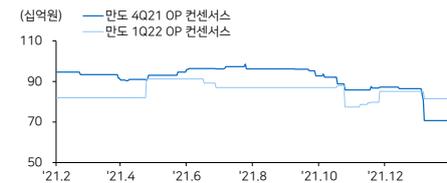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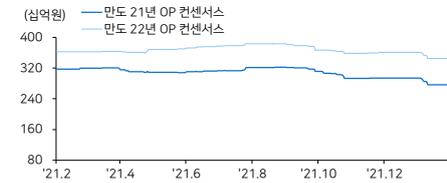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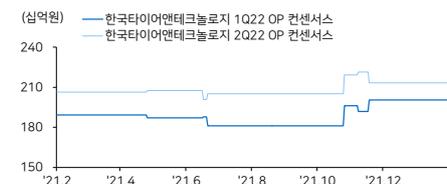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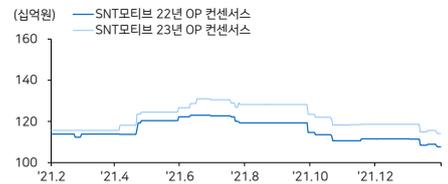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남아시아 화약과 건드린 현대차...인도서 불매운동 약재 만나나 (파이낸셜뉴스)

현대파카스탄, '기아 크로스로드' 등 파키스탄 트위터 계정에서 '카슈미르 연대의 날'을 기념하는 트윗을 올려 인도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조짐이 발생함. 현대차는 게시물을 올린 대리점에 강력히 경고하는 등 논란 진화를 위한 노력 중.
<https://bit.ly/3J1zn7Q>

Velodyne Lidar surges after Amazon discloses pact with sensor maker (Seeking Alpha)

아마존이 3,960만주에 달할 수 있는 벨로다인 신주인수권 인수를 발표함에 따라 벨로다인 주가는 87% 급등함. 인수가격은 지난 2월 3일 기준 30일 가중평균 가격이며, 행사가격은 2030년 이전 4.18\$.
<https://bit.ly/3sHuhqX>

'테슬라 게 셋거라' 중국 3대 전기차 추격 '가속도' (서울신문)

SCMP는 '사오잉/리상/니오 3개 업체의 합산 판매량에 테슬라의 90%에 육박하여 올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함. 반면 인지도 격차, 반도체 확보, 신차 출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이 필요하여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
<https://bit.ly/3owWKKO>

Nissan to end gas engine development (but not really) (electrek)

니케이 아시야는 '닛산이 일본 OEM 최초로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함. 그러나 닛산은 현재 상당 부분의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미국 시장의 가솔린 픽업트럭 개발은 계속될 것으로 추측됨.
<https://reut.rs/3ryQB6I>

The latest numbers on the microchip shortage: Another million vehicles threatened (Auto News)

올해 이미 약 37만 대의 차량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생산계획에서 조정됨. AutoForecast Solution은 올해 전 세계에서 100만대 규모의 생산 차질을 전망함. 특히 남미와 북미 지역에서 감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Bda3co>

기아, 영국서 일 났다...30년 만에 처음 판매 '1위' (THE GURU)

기아는 영국 시장 진출 30년만에 10,504대를 판매하며 지난달 판매 1위를 기록함.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에 선제적 대응한 결과로 분석되며, 시장점유율 역시 역대 최고인 9.13%를 기록함. SUV모델 스포티지아 실적을 견인함.
<https://bit.ly/3336XuG>

Aptiv joins Audi in software investment (Automotive News)

자율주행 SW 업체 앵티브는 TTTech Auto에 2억 2,8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함. Aptiv와 Audi는 TTTech Auto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https://bit.ly/3uwVZcg>

Global Electric Vehicle market size to swell by five-times to \$823.74B by 2030 (Teslarati)

Allied Market Research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치가 5배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를 발표함. 2030년까지 CAGR 18.2% 성장, 8,23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https://bit.ly/3B7rAI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